

임업의 경영 활성화 방안

임 지 중 / 경남 거창군 독립가

본고는 제2회 농어민의 날을 맞는 것을 계기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여 지난 11.13.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본회 이사 임지중(경남 거창)씨가 발표한 내용을 전재하는 것임 - 편집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지중입니다.

먼저, 보잘 것 없는 저를 농업인의 날에 초대해 주셔서 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약 30년간 산림을 경영하여 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을 토대로 현재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임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산림경영의 시작

저는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뜻한 바가 있어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

교를 졸업한 후에 동경에 있는 지포공과대학에서 토목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전공을 살려 영남일대에서 건설업을 하였습니다.

국가재건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저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저는 우연한 기회에 고향에 산을 구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약 40년전부터 산을 구입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약 150ha 정도의 면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산을 구입한 동기는 나무를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노년에 고향에 돌아와서 소일거리를 만들고 재산을 증식하려는 의도가 약간 있었습니다.

제가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은 약 30년전 부터인데 그 당시에는 단순히 산을 그냥 두는 것이 아까워서 취미삼아 나무를 조금씩 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심은 나무들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해서 저는 본격적으로 나무를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구와 거창을 오가며 건설업과 임업을 겸하고 있었으나 약 5년전부터 임업에 전념하기 위해 건설업을 저의 자식에게 물려주고 고향인 거창으로 귀향하였습니다.

저는 30년동안 건설업에서 모은 돈으로 상당한 액수를 임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임업에 투자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주위의 사람들이 저에게 미쳤다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 건설업에서 벌은 돈을 왜 임업에 투자하는가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심기 시작한 나무들이 성장하여 성목이 된 것을 보면서 자랑스럽고 보람도 느끼며 감회가 깊기도 합니다.

도시에 살던 저는 임업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는 아무땅에다 심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도 많았습니다. 애써 조림한 나무들이 그 다음해에 모두 죽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질이나 위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수종으로 조

림하고 몇 년을 기다렸더니 나무의 성장속도가 너무나 차이가 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 값진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차츰 경험을 쌓으면서 토양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조림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풀베기, 비료주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을 실시하다 보니 이제는 건강한 숲이 되었습니다.

약 10년전에 간벌을 하면서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작업 인부들이 멋대로 나무를 베었을 때 저는 청춘을 바쳐서 애지 중지하며 키운 나무들이 단 몇시간에 넘어간 것을 보았고, 마치 자식을 잃은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2. 산림경영 현황

저의 산은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일대에 있는데 여기에 1973년부터 1991년까지 잣나무를 70ha에 약 21만본을 심었고, 낙엽송은 1976년에서 1981년 사이에 74ha의 면적에 약 22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육림 사업으로는 풀베기가 1977년에서 1982년까지 약 315ha, 비료주기는 1987년에서 1991년까지 약 117ha, 간벌은 1987년에서 1990년까지 약 127ha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산림을 가꾸기 위해 생산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1989년에서 1994년까지 약 8km의 임도를 개설하였는데 그 가운데 약 3.5km를 자비로 개설하였습니다. 조림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조림에 필요한 묘목도 자체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년동안 저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을 산에 투자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산에 투자한 액수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무리지만 만일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였거나 혹은 다른 사업에 투자하였다면 지금보다는 재산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이나 다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의아해 하실수도 있겠지만 워낙 장기적으로 투자하였고, 투자 초기에 본격적으로 경영을 하기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액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저의 경우에는 다른 산주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손익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금년의 투자 내용과 내후년의 투자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의 산에는 해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십니다. 그 이유는 저의 산이 다른 산에 비해 비교적 잘 가꾸어 졌다고 알려진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의 산에 오시는 분들마다 산이 잘 가꾸어 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30년간 공을 들여서 가꾸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산림가꾸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산림

사업량과 그에 대한 비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저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약 10ha에 걸쳐 조림을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잣나무를 위주로 조림하였으나, 내년에는 참나무, 전나무, 구상나무 등을 중심으로 조림을 할 예정입니다.

조림비용은 ha당 약 1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중에 약 60만원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정부의 조림 단가는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하자면 자부담을 늘려야 합니다.

육림비용은 조림비용에 비해 더욱 많이 듭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육림면적은 약 40ha정도인데 간벌의 경우 ha당 약 8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정부 보조금은 약 40만원에 불과합니다. 최근까지도 해마다 약 50ha에 걸쳐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내년부터는 약간씩 줄일 계획입니다.

여기서 저의 산림경영 실태를 언급해야 하므로 할 수 없이 말씀 드리겠지만, 저의 산림 경영상태를 보시면 한심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임업에 수십년간 종사한 산림경영자로 단언하건데 다른 산주들의 경영실태도 저와 거의 같은 실정일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대로 육림과 조림사업에 해마다 약 5,000만원 정도의 경영비용이 드는데 그 중에 약 50% 정도인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가 자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의 경우는 다른 산주에 비해서 비용이 비교적 적

게 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경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5년전부터 전체 인원이 12명인 영림 작업단을 조직하여 조림과 육림작업 등 산림 경영사업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림작업단은 산림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산림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임업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풀베기, 가지치기, 나무자르기, 목재나르기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촌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림 작업단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한기에 산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산의 주요 수종은 낙엽송과 잣나무로 낙엽송은 벌기령이 약 50년이고 잣나무는 약 100년이니 앞으로도 약 30년이상 금년수준의 육림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기령은 목재를 벌채해야 할 때의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데 산림경영에서는 수확을 하는 시기를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컨대 낙엽송의 벌기령이 50년이라하면 낙엽송의 나이가 50년일 때 벌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산림에서 나오는 수익은 아직도 거의 없습니다. 산림경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목재생산으로 인한 것과 버섯과 같은 목재 이외의 부산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재생산에 의한 수익은 다시 간벌 재생산과 주벌재 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벌은 나무를 기르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로 나무를 솎아 주는 작업인데 20~30년된 나무를 솎아 주는 경우에는 목재로 판매 가능하므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간벌 수익입니다.

간벌수익은 산주에게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하므로 임업경영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나무가 벌채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주가 기대하는 것은 간벌 수익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임업의 여건상 간벌수익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간벌수익이 거의 소멸된 이유로는 노동비용의 상승과 목재가격의 하락등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이야기지만 지금 농촌에는 기계톱을 작동시킬만한 노동인력이 거의 없고 그나마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산림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임도 너무 비쌉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림작업단의 평균 연령이 약60세 정도인데 임업협동조합의 영림작업단도 비슷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니 당연히 노임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계톱을 가진 인부의 1일 노임이 7만원 이상인데 비해 정부의 노임단가는 5만원 수준으로 정부의 보조금으로 영림계획에 따른 산림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정부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말미에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

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산에는 잣이 제법 생산되는데 노임이 워낙 비싸서 잣 수확으로 얻은 수익은 잣나무를 식재할 당시에 기대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편 비싸고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생력화 작업이 미진한 것도 임업경영 부실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생력화를 위한 기계설비나 기계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생력화를 위한 기본시설인 임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반면, 목재가격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약 20년전에 낙엽송의 가격이 산에 서있는 채로 한 그루당 약 3,000원이었는데 현재는 벌채해서 도로변에 내려놓고도 주당 2,500원 정도를 받고 있으니 가격의 하락 정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산주들이 그 당시의 가격을 계산하고 조림을 하였고 저 역시도 같은 계산으로 조림을 하였기 때문에 목재가격의 하락은 산림경영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일 것입니다.

지금은 나무를 거저 준다고 해도 산 아래로 끌어 오는 비용 즉 벌채작업비와 하산 및 집재비용이 판매 수익보다 많기 때문에 간벌재들이 산에 버려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니 간벌수익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상태로 목재시장과 노동시장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산림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이 되는 주벌수익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임업은 농업과는 달리 수익성의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영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먼 장래의 목재가격이나 경영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목재는 농작물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목재는 농작물과는 달리 수확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도 수익성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나무가 완전히 성장하였다도 수확시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벌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경영하는 산에서 앞으로 몇 년후에 어느정도의 면적을 벌채해야 할 것인가를 영림계획서에 있으나 계획대로 벌채여부는 그때 가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밝힌대로 현재의 목재가격과 노동비용 그리고 산림경영 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금부터 약 30년 뒤에 이루어질 주벌로 인한 수익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금년부터 잣을 수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의 산에서 송이채로 잣을 약 10톤정도 수확하였는데 이를 가공한다면 약 1톤 정도의 잣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비싼 노임으로 수익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데 잣을 따고 잣송이를 까는데 필요한 인건비등 비용을 제외한다면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잣수확량이 어떻게 변할것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노임이 계속 오르고 중국산 잣이 값싸

게 반입된다면 잣생산으로 인한 수익도 줄어 들것이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경영으로는 현재의 목재시장과 목재 생산요소의 여건을 감안할 때 경영수지를 절대로 맞출수 없다는 것입니다. 잣과 같은 산림부산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나 이것도 노동력 부족과 중국임산물의 수입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

오늘 저를 불러주신 것은 침체한 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몇가지 말씀을 두서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산림보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산림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산주들이 가입하기에는 부담이 큼니다. 더구나 임업에 투자하는 자체가 경제성이 없는데 비싼 보험을 사는 산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에게는 산림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불이 나면 몇십년동안 애써 가꾸어 왔던 산림이 하루 아침에 잣더미로 변합니다. 산림보험이 산불과 같이 손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보

험은 산림작업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림작업은 그 어떤 작업보다도 위험합니다. 저는 영림작업단과 같이 직접 산림작업을 하면서 작업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종종 보았습니다. 얼마전에는 저의 작업단의 인부가 산림 작업중에 벌에 쏘여서 실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계톱을 잘못 조작하면 한순간에 수족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치기 작업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하므로 항상 위험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산림보험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째, 임업경영에 대한 보조가 현실화되고 그 내용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산림경영을 위한 용자는 독립가나 임업후계자의 경우에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의 이자율보다 월등히 낮은 3% 또는 5%의 임업경영 용자금도 50년 이상 투자가 필요한 산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업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요구되므로 값싼 용자금이라도 계속 쌓이면 빚더미가 되고 결국 용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나중에는 산이 넘어 갈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몇명의 산주를 통해서 보아 왔습니다.

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산만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만 산에 투자하여 나무를 가꾸면 후손에게 산은커녕 빚더

미만 물려줄 수도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누가 산에 투자하고 나무를 가꾸겠습니까?

결국 임업에 있어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용자보다는 무상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에 대한 작업단비의 현실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의 사업보조비가 작업단비를 기준으로 제공되는데 단비가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실제 보조액으로 항상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산림작업기계와 유류비에 대한 보조요청도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농기계와 유류비에 대한 보조와 면세조치가 있는데 농업보다 경제성이 낮고 국민들에게 공익적인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임업에서 이러한 혜택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중에는 사유림에 정부가 보조를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설령 임업현실을 이해하시는 분이더라도 산림의 공익성 기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개인적 재산형성으로 귀착되는데 모든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업이 경제성을 상실하였다고 해서 모든 산주들이 산을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물어야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입니다.

조그만 태풍에도 산사태가 나서 사람

이 죽고 토사가 농토를 망쳐서 농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강물이 흙탕물로 흐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림에서 제공받는 모든 공익적인 기능이 역으로 폐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우리 산주들이 산림을 가꾸면서 국민들에게 공익적인 혜택을 아무런 경제적 보상없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보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송이버섯에 대한 특별보호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송이버섯은 농산물이나 임산물 가운데 가장 고가로 판매되므로 산주가 채취하여 판매할 수 있다면 산주의 수익증대에 보탬이 되어 임업경영수지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송이버섯은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되므로 외화 획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송이버섯이 타인에 의해서 마구 채취되고 심한 경우에는 송이밭이 망가져서 다음해에는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송이버섯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엄벌할 수 있도록 송이버섯 특별법을 제정하여 산주의 단기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산림을 이용한 단기소득원의 개발입니다. 임업경영에서 길게는 100년이 걸리는 목재생산을 위한 투자비용을 산림에서 단기적으로 소득을 올려서 재투자하는 재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앞서 말한 송이버섯을 비롯한 버섯류, 산지축산, 야생동물사육, 약초재배, 산나물과 약나무 재배, 수액채취 등 산림의 무궁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생산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에서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업협동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임협의 이사와 감사는 임협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 한평의 산지도 없는자나 1ha미만의 산지 소유자가 이어나 감사 또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와 산주들의 바램은 임협은 산림에 관심이 많고 임협출자 역시 최소한 100만원 이상이 되는 독립가나 임업후계자 중에서 임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산림청에서 조만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맺는 말

지금까지 저의 두서없는 말씀을 정리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독립가와 임업후계자를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임협의 이사 등으로 발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임업의 경영수지를 호전시키기 위해 산림부산물을 단기소득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공익적인 혜택을 다양하게 부여하는 임업인들에 대한 세제감면 및 산림사업의 보조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를 키운 죄밖에 없는 저희 산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와서 뭐가 필요하고 무슨 덕을 보겠다고 매일 산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 그리고 후세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오늘 의 어려움을 묵묵히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그리고 후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